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1일 월요일 오후 쏟아진 폭우로 인해 홍수사태가 발생한 레먼스터의 모습. 주지사는 홍수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 매사추세츠도 극심한 기후 일반화 되나

토네이도, 장마, 기습적 폭우 잦은 매사추세츠  
가뭄과 잦은 폭우 등 극심한 날씨 변화 겪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일기예보에 예상되지 않은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이 8일 금요일 오후 거리를 휩쓸었다. 끊어진 전선이 단전사태를 일으켰고 보스톤 북쪽

지역 3만5천 가구의 전원이 끊겼다. 단전의 고통은 주말까지 지속됐다.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졌으며 이번 주 들어서도 비는 계속됐다. 돌아보면 지난 여름

에는 장마처럼 많은 비가 내렸다. 올여름 6월부터 8월까지 매사추세츠에는 사상 두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지난 여름 내내 내린 비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습도의 한계점을 넘어섰다. 지반의 약화가 초래되는 것은 자연스런 순이었다. 11일 월요일 오후 레먼스터(Leominster)에는 폭우가 쏟아져 내린지 몇시간 ▶▶7면으로 계속

## 한국의 날 행사 내달 6일 주청사에서 개최

매사추세츠 정치인, 아시안 지도인사 대거 참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 한미시민협회는 10월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비컨힐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주청사 그레이트홀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매사추세츠 한인 커뮤니티 및 한국의 문화, 전통을 매사추세츠 주류 사회 및 이웃 커뮤니티에 알리고, 주 정계와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해온 한국의 날 행사는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다.

시민협회에 따르면 9월 13일 현재 약 90여 명이 넘는 매사추세츠 정치인들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주요 지도자들이 행사 초청에 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재휘 보스톤총영사, 미셸우 보스톤시장, 택키 찬 매사추세 하원 의원 등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시민협회가 밝힌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은 바나 하워드 ▶▶3면으로 계속

**KJS**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턴 한미 노인회, 한윤형 회원 90세 생일 기념 파티 개최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 노인회는 9월 6일 수요일 노스앤도버 다문화 선교 교회에서 회원 130명이 넘게 모인 가운데 한윤형 회원의 90세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

이 특별한 날은 가족들의 후원 아래 열렸으며, 한윤형 회원은 뉴 햄프셔 초대 한인회장을 역임했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윤형 회원의 90세 생일 파티에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중앙대 동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 행사는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 회장이 주관했으며, 김은한 박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축하 공연으로 안혜형씨의 가곡 독창과 이상현의 색소폰 연주도 참석자들을 감동에 젖게 한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행사 후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한식 점심, 떡과 후식을 나누며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한미 노인회 사랑방 모임은 9월

20일 수요일에 N. Andover 다문화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며, 한순용 회장은 60세 이상의 새로운 회원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에는 회원들의 고국 방문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말까지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미 노인회는 지역 한인 공동체에서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며, 회원들 간의 연대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노인회 측은 이번 90세 생일 파티 역시 이 같은 연대의 한 사례라고 말하며 회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스턴 한미 노인회는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교회 (57 Peters St. N. Andover) 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지며 ▲커피 및 다과 나눔 ▲노래 교실 ▲국민 체조 ▲요가 ▲점심식사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한미노인회: 978-835-9168 (한순용 회장)

bostonkorean@hotmail.com



사진=노인회제공

서울설렁탕  
SEOUL SELLE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023년 첫 임지훈 장학재단 수상자들. 왼쪽에서 5번째가 임지훈 교수 (사진=임지훈장학재단 제공)

## 뉴욕 중심 임지훈 장학재단, 보스톤 지역으로 확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임지훈 장학재단이 수상 대상을 보스톤 지역으로 확대한다.

전 카카오 CEO이자 현재 뉴욕대(NYU) 스티븐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임지훈 교수가 설립한 이 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뉴욕, 워싱턴 일원의 학생들 10명을 선발해 \$5,000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2년 말 설립된 임지훈 장학재단은 내년 두번째 장학생 선발부터는 매사추세츠 및 로드아일랜드 두 곳을 포함한 보스톤 지역으로 선발 범위를 확대한다. 장학금 수여 학생 수도 현재의 10명에서 두배로 늘린

20명으로 확대한다. 장학재단의 K. 김 디렉터에 따르면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임교수는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과정 중에 재단 이사들 중에서 보스톤 지역도 추가하자는 제안이 나와 보스톤 지역도 추가됐다.

임지훈 장학재단의 장학생은 뉴욕, 워싱턴과 보스톤 일원의 지역에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한인 2세 또는 영주권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장학금 지원서와 에세이, 추천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임지훈 장학재단은 장학금 수여에서 그치지 않고 각 지역 수여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멘토링도 제공한다.

임교수는 첫번째 장학금 시상 리셉션에서 "저희 장학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평생친구가 생기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학금 신청 또는 장학금 관련 소식은 <https://www.jrimfoundation.org/announc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한국의 날 행사 내달 6일 주청사에서 개최

▶▶1면에 이어서

하원의원, 에리카 아이터호브 하원의원, 에드 플린 보스톤 시장, 리나 라이나 퀴지 시의원, 린다 챔피언 MACSWG 커미셔너, 멀랜드 디로지에 아이티 커뮤니티 센터 창립자, 게리 유 NECAA 회장 등이다.

양미아 시민협회장은 "모라 힐리 주지사, 김 드리스콜 부주지사, 캐린 스필카 주 상원의장 등의 초대를 추진 중이며 채널 5 리포터 대내 부치를 이날 행사 MC로 초청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식 오찬이 제공되며 정재형 태권도협회장이 이끄는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공연, 국악재즈소사이어티의 공

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여러 부스가 마련된다.

양미아 회장은 "한국의 위상을 매사추세츠 사회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꼭 참석해 성원해 달라" 고 당부했다.

행사 참여 등록은 Evite로 할 수 있다. 행사 참여 및 행사에 대한 문의는 시민협회 양미아 회장(508) 728-0832 혹은 김성군이 사장(617) 799-7033에게 할 수 있다.

참여 등록 : <https://www.eventbrite.com/e/korea-day-tickets-698144116847?aff=oddtcreator>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재즈 명문 버클리 음대에서 최초 국악 공연 개최

9월 29일 추석날 밤, <사물놀이 재즈 음반> 발매기념 공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9월 29일 추석날 밤 버클리 음대에서 국악재즈소사이어티의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 음반 발매 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버클리 퍼포먼스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국악 공연이다.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은 2022년 뉴잉글랜드 음악원(NEC) 조던 홀에서 국악재즈소사이어티에 의해 초연된 창작 음악극이다. 한국 전통 연희에서 영감을 받아 사물놀이와 판소리를 중심으로 창작한 현대적인 음악극으로, 재즈, 블랙가스펠, 한국 정가, 르네상스 모테트 등 다양한 장르들과 접목하여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연희를 구현한다.

국악재즈소사이어티 조미나 대표는 “음악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되었던 모교 버클리 음대에서 국악 재즈소사이어티 멤버들과 뜻깊은 공연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며 “이번 공연에는 초연 때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곡들을 선보일 예정” 이라고 말했다.

조대표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서는 로비 패이트, 파라이 말렉, 조셉 코플랜드 등 버클리 교수진 외에 학

생들로 구성된 ‘판소리 가스펠 콰이어’ 가 소리꾼 김보림 씨와 협력한다. 조미나 대표가 연주하는 ‘그 그레이스 비트 프로젝트’ 앙상블, ‘그 그레이스 비트 콰텟’ 의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계절>은 조미나 대표의 창작극으로 100년간 음악 사제직을 완료하고 보름달과 보스톤 찰스 강 사이에 생성된 ‘별달거리’ 를 통해 하룻밤 여행을 나온 이상세계 옥토끼 ‘레인’ 과 소리꾼으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유학길에 오른 ‘순이’ 라는 인물의 이야기다.

국악재즈소사이어티는 지난 7월 16일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에 초청되어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한국 관객들에게 <계절>의 수록곡들을 첫 선보여 찬사를 받았다.

조미나 대표는 예일스 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협력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보스톤 한국전통예술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재즈학 전공 및 음악학 부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 수료 후, 현재 고박동진 명창의 판소리 작품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고 있



다. 2019년 국악재즈소사이어티의 첫 공식 활동을 보스톤에서 시작한 이래, 판소리 칸타타 “길령전”, “그 리코리아” 음반 및 다큐멘터리,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은 스테판 그리고그 선주 가벨 부부의 후원으로 기획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티켓 구매를 통해 전석 무료 입장으로 진행된다. 공연장에서 음반 구매도 가능하다. 버클리 퍼포먼스 센터 주소는 136

Mass Ave, Boston, MA 02115 이고,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GJI.org>  
 공연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9CmOxi700w>  
 2023년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공연 실황  
<https://www.youtube.com/watch?v=5ZV2nz8Oan4&t=1015s>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렉싱턴 한인단체 코렉스 18일 모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렉싱턴 한인단체 코렉스(KOlex, 회장 실비아 한)가 렉싱턴 타운커뮤니티센터에서 9월 18일(월) 오전 10시에 정기모임을 연다.

코렉스는 렉싱턴 타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렉싱턴 타운과의 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렉싱턴에 거주하면서 학교, 타운 등에 대한 문의가 있는 한인들은 코렉스에 참여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KOlex.org](http://www.KOlex.org))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메일 ([Kolexlexington@gmail.com](mailto:Kolexlexington@gmail.com))로 문의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범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 허리케인 리, 매사추세츠 영향권에 들까?

### 매사추세츠 남동쪽, 케이프코드 섬 일원 영향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폭우 가능성 많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다음은 허리케인 리다. 버뮤다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리의 영향권에 매사추세츠주 및 뉴잉글랜드 동부지역이 놓일 것으로 보여 진로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테고리 2급으로 약간 약화된 채 현재 약 시속 105마일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허리케인 리는 지난 8일만 해도 버뮤다 남쪽 해상에서 카테고리 5의 허리케인이었다.

미국 기상청은 "허리케인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와 만나면서 48시간 안에 세력이 점차 약화될 것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미 허리케인센터는 매사추세츠에는 열대성 저기압 주의보, 메인에는 허리케인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허리케인센터는 수요일 저녁 케이프코드와 낸터킷 등 매사추세츠 남동쪽 섬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폭풍과 홍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는 열대성 저기압 주의

보에 로드아일랜드에서 메인 그리고 마타스베너드, 낸터킷 등 동부 해안쪽만 포함되어 있다.

허리케인 리는 주변 80마일 반경에 허리케인의 폭풍을 일으키며 최대 185마일까지 열대성저기압으로 인한 폭풍을 동반한다고 기상청은 경고했다.

13일 수요일 밤 11시 현재 리는 버뮤다 남서쪽 해상 345마일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낸터킷에서는 920마일 남쪽에 위치해 있다.

리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다 수요일 북쪽으로 선회했으며 빠른 속도로 12일 목요일 버뮤다를 지나서 13일 금요일 북상하게 된다. 15일 금요일과 16일 토요일 뉴잉글랜드와 캐나다에 접근해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오를라호마 대학 기후과학 박사 후보과정의 토머 버그는 12일 트윗을 통해 이번 허리케인 리가 뉴잉글랜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그러나 "이번 주말 허리케인이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 지역을 영향권에 들지는 아직까지 속단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케인의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비록 먼 바다로 지나가더라도 강력한 바람과 강한 비 등의 영향권 안에 놓일 수 있다며 향후 며칠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리케인이 지나면서 동부 해안에는 이번 주 내내 강한 파도와 아주 위험한 립 커런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허리케인에 대비한 주요 준비 사항이다.

- 최근의 일기예보와 주의보를 주의 깊게 챙긴다.
- 스마트폰 각종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고 손전등도 준비한다.
- 집을 떠나야 한다면 어디로 피신할지 알아둔다.
- 음식과 물 필수품을 챙긴다.
- 집에 느슨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단단히 매어둔다.

# 주 보건부 6개 타운 뇌염모기 위험도 최고 수위로 높여

### 6개 타운 해질녘 야외활동 금지, 다른 시간으로 조정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부(DPH)는 11일 서튼과 사우스브리지에서 채집된 모기 중에서 EEE감염 모기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부말뇌염(EEE) 모기의 채집이 증가하면서 주 보건부는 더글라스, 더들리, 옥스포드, 사우스브리지, 서튼, 그리고 웨스터 지역의 모기감염 수준을 최고수위인 높음으로 격상시켰다. 아울러 어번, 찰튼, 그래프턴, 말버리, 노스브리지 지역의 수준을 중간수위인 보통으로 높였다.

EEE 모기는 9월 1일 매사추세츠 더글라스와 사우스브리지에서 최초로 채집됐다.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이미 EEE감염 모기가 발견됐으며 한 나귀가 EEE에 감염됐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아직 사람 또는 동물감염은 없었다.

로버트 골드스타인 보건부장관은 "EEE는 아주 희귀한 질병이지만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입

원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주민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일부 타운은 너무 모기 위험이 심해 해가 지는 시간에는 야외 액티비티를 조정하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 감염병학자 캐서린 브라운 박사는 "EEE 모기들은 해질녘과 해질녘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러나 대낮에도 흐린 날이나, 그늘,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모기에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J.K. PLUMBING & HEATING

###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 978.303.7000

#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한국학교협의회 2023년도 정기 교사연수회 성공리에 개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9월 개학을 앞두고 2023학년도 하반기 정기 교사연수회를 온라인 및 현장학습으로 개최했다.

‘신기술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이란 주제로 개최된 연수회에서 김재휘 보스턴 총영사는 “지역의 여러 한글학교들이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모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사를 통해 한국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일 회장과 오인식 이사장 역시 격려사를 통해 ‘새 시대에 대처하는 교육열정’을 목표로 하는 주제이며 열린 마음으로 옛 것을 지킴과 동시에 새로운 교육 방안을 받아들여 세대간의 간격을 줄여나가 한국어 교육환경의 미래를 밝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연수회 전체강연에서 김택수 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부 겸임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놀이로 여는 한국어 수업’ 주제로 첫번째 강연을 한동만 대사가 ‘세계화 속의 글로벌 리더십’의 주제로 두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가진 현장 분반강연에서는 김민희 강사의 ‘동백꽃 수목과 체험강의’가 열렸다. 유치-기초과정을 대상으로 홍소영 실리콘벨리 한국학교 교사가 ‘7세까지 모여라, 신라게 놀자!’라는 강연을, 초급이상 대상으로는 박지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세종과정 교사가 ‘배우는 대로 똑똑 기억되는 한국어 수업’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강연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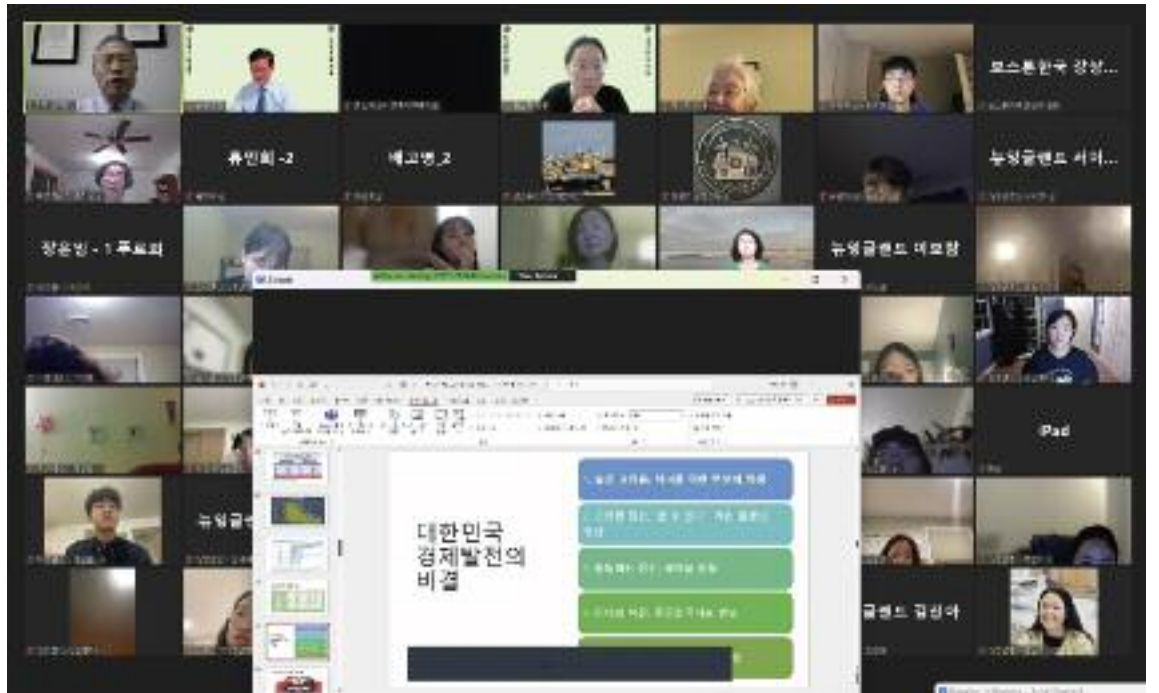
로 각 학교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학술대회 소개 및 차세대 리더 교사로서의 경험 나눔’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김택수 교수는 “AI가 교육현장에도 빠른 속도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글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AI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교수는 다양한 AI 프로그램들로 수업 준비 시간을 벌여줄 수 있는 만큼 학생에 관심을 쏟으면 2세들의 한글학교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동만 대사는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강조한 후 “2세들의 미래를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소중하다”고 말하고 참석한 교사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2023년도 하반기 교사연수회에는 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 누리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메인 한글학교, 보스턴중앙교회 한국학교, 보스턴 한국학교, 북부보스턴 한국학교,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애머스트 한국학교, 푸르미 한국문화학교 등 모두 10개 학교의 교사 93명이 참석했고 보스턴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 오인식 이사장, 윤미아 직전 이사장, 이정희 부이사장, 박현아 총무이사과 함혜란 명정호 협의회 이사회에서도 참석하여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2세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차세대 리더십 상



을 수여했다. 또한 협의회 김소희 총무는 다음 행사로 ‘제 3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보고 공모전’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부터는 지도 교안 경연을 통한 교사 시상이 추

가된다고 말하고 행사 참가신청 및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교장 선생님 및 협의회 홈페이지(www.naks-ne.org)를 통해 안내된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는 행사 및 문의는 협의회 연락처 전화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naks.ne.us@gmail.com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 매사추세츠도 극심한 기후 일반화 되나

▶▶1면에 이어서

만에 지반이 흡수하지 못하는 빗물들이 지상에 머물면서 순식간에 '피트 깊이'의 홍수사태를 일으켰다. 도로도 덧없이 무너져 내렸고 철로도 유실됐다.

유메스 앰허스트 기후체계연구센터의 마이클 톨린스 소장은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이런 기후가 새로운 정상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어떤 게 정상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올해만도 몇차례 토네이도가 찾아들었다. 매사추세츠 뿐만 아니다. 올 여름 초버몬트에는 48시간에 무려 9인치의 폭우가 쏟아져 거리와 집들이 잠겼으며 포트랜드 다운타운에서는 보트를 타고 사람들을 구해야 했다. 같은 폭풍우에 매사추세츠 서부지역의 농가도 커다란 홍수피해를 입었다.

세계적으로는 최근 리비아에서 집

중호우에 따른 홍수사태로 인해 수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계적으로는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으며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지난 2020년 콜로라도 소재 기후연구전국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미 동부는 18% 더 많은 비와 홍수피해를 경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해 출간된 다른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지구 온난화가 계속 되는 경우 미국은 7.9% 더 많은 홍수를 경험하게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극심한 기후 행태는 아주 간단한 물리학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온난화로 대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더 많은 수증기가 배출되어 대기 중으로 올라간다. 기온이 높으면 더 많은 습기를 머금게 된다. 그 결과 따뜻해진 지

구에 더 많고 급격한 비를 쏟아낸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는 홍수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많은 비가 내리면 지면의 토양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지면으로 흡수되지 못한 물들이 지표면을 내달리는 현상이 바로 홍수이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얼마전 NOAA는 올해 가을 미 동부에 더 많고 극심한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을 예측했는데 바로 위와 같은 논리가 바탕이었다.

반대로, 지난해 여름 매사추세츠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는 많은 비와 극심한 가뭄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며 지구상의 기후변화를 극한의 형태로 경험하게 하고 있다.

MIT의 기후학과 케리 이메뉴얼 교수는 기후변화가 이같은 허리케인 등의 폭풍우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것을 발견했으며 향후 온난화에 따라 더 많은 극심한 기후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매사추세츠에서 겪고 있는 기습적인 폭풍우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메뉴얼 교수는 레먼스터의 홍수사태 및 매사추세츠의 폭풍우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메뉴얼 교수는 폭풍우의 문제는 온난화로 인해 바람의 이동 속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즉 폭풍우의 이동속도가 빠르지 않고 느리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비가 쏟아지게 되고 이는 홍수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제 뉴잉글랜드는 허리케인 리가

물고 올 날씨를 맞이하게 된다.

허리케인은 대양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비와 바람을 머금어 강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11일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는 2022년도에 비해 1도가 높았으며 이는 과거 평균보다 2도나 높은 사상최고다.

이처럼 올라간 해수면 온도로 인한 폭풍우의 강화는 언제 어디서 더 많은 폭우와 폭풍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연재

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은 레인게든처럼 더 많은 나무와 식물을 심는 공간을 늘리고 지표면의 물이 좀더 낮은 속도로 흘러 내려갈 수 있는 자연스런 하천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극심한 집중호우와 맞닥뜨리는 경우 이 같은 조치도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게 된다. 우리가 만든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겪는 일이니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editor@bostonkorea.com



## 1만여 넘는 가정 아직도 단전 겪어, 10일도 폭풍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세 벽 기자 =** 주말에 찾아 든 폭풍우로 매사추세츠 주 상당 수의 가정이 3일째인 10일 일요일 오후까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재난관리본부(MEMA)에 따르면 단전사태를 겪고 있는 가정은 10일 오후 2시 현재 13,900가정이다. 이중 상당수는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앤도버의 6,700가정, 노스 앤도버 3,100가정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다.

10일인 일요일에도 또 폭풍우가 예상되고 있어 복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내셔널그리드는 "대부분의 가정이 10일까지는 복구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내셔널그리드는 9일 앤도버에 있는 전기변전소를 수리했지만 여전히 일부 나뭇가지에 걸려 끊어진 전선은 완전 복구시키지 못했다. 앤도버의 공공사업부는 주요 타운 도로에 있는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작업을 지속했다.

기상청은 10일 오후에는 강한 폭풍우가 또 한차례 매사추세츠 일원을 덮치게 되며 집중호우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건 공항은 안개와 호우로 인해 2시 현재 158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258편의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철 가입 **617.543.8106**

# 매일 빨래해도 모르는 빨래를 잘하는 7가지 팁

## 섬유 유연제 사용은 그만, 다른 옷을 헤치는 6가지 일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학생들의 경우 그동안 부모님에게 맡기던 빨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집안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심지어 늘 세탁기를 사용해서 빨래를 하는 부모들도 크게 빨래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빨래로 인한 실수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소중한 옷을 망쳐 되돌릴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빨래는 좀더 꼼꼼하게 제대로 신경 써야 실수하지 않는다. 세탁을 잘하게 되면 옷뿐만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도 오래 보존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다. 빨래하고 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빨래시 피해야 할 실수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정리했다.

### 1. 옷의 관리 태그를 살펴보자

옷의 관리 태그를 무시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좋아하는 옷은 오래 입을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옷의 태그에서 나오는 심벌이 무엇을 의미하고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 마치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설명서에 나오는 그대로 끓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옷의 관리는 설명서대로 하는 것이 최고다. 모르는 경우 구글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2. 빨래는 옷에게는 커다란 고난이다.

좋아하는 옷들이 세탁기와 건조기에 들어가야 한다. 지퍼는 올려서 다른 옷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셔츠는 단추를 모두 풀고 겹과 안을 뒤집는다. 민감한 옷들은 그물란제리 백에 넣어 빨아준다. 세탁기에서 옷을 꺼내면 털어서 드라이어에 넣는다. 한꺼번에

몰아 넣는 경우 옷의 구김이 퍼지지 않는다. 드라이어는 옷을 수축시키기에 마련이다.

### 3. 세탁기를 세탁해야 한다.

대부분의 세탁기는 자체 청소모드가 있지만 세탁기 드럼통 안의 물드 등의 나쁜 것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는 타겟 등에서 살 수 있는 Affresh를 구입해 넣고 한달에 한번씩은 세탁기를 청소해줘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식초 한컵과 베이킹 소다 한 컵을 넣고 뜨거운 물로 세탁기를 돌리면 된다. 드라이어의 경우 드라이어 공기배출구를 1년에 한번 정도 청소해야 한다. 흡디포 등에서 청소도구를 구입해 청소할 수 있으며 공기청소기로도 이를 청소할 수 있다. 드라이어 공기배출구를 청소하지 않아 막히는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 4. 너무 자주 빨지 말고 가장 짧게 건조하라

한번 입을 옷을 반드시 빨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얼룩이 묻었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는 물론 빨아야 한다. 따라서 옷을 깨끗이 입고 매번 빨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드라이어를 사용시 가장 짧게 옷을 돌린 후 이를 건조대에 널어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옷의 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기(또는 가스)요금도 절약하며 자연환경의 파괴도 막는다.

### 5. 빨래 세제를 가능한 한 적게 넣는다.

현대의 세제들은 강력한 농축물이다 보니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세탁기는 계속해서 옷을 행궤내야(Rinse) 하기에 빨래 시간을 늘리게 된다. 이는 물과 전기 또는 가스 사용을 늘리게 되고 동시에 옷에 대한 손



상도 늘리게 된다.

### 6. 표백제 사용도 줄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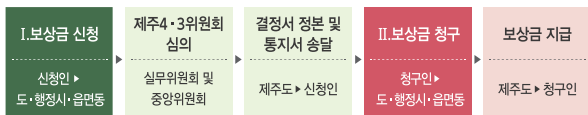
표백제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고 모든 옷감에 사용할 수도 없다. 반면 클로락스가 아닌 산소표백제는 모든 옷감에 사용 가능하다. 옥시클린 산소표백제(OxiClean White Revive)는 하얀 티셔츠를 더 하얗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산소표백제는 높은 온도에 오랜 시간을 요구하므로 밤에 잘 때 뜨거운 물에 옷을 담가 두고 다음날 빨아야 한다.

### 7. 너무 많은 첨가물 삼가야

방향제, 섬유유연제, 드라이어 시트 등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첨가제 사용을 삼가라고 말한다. 특히 섬유유연제는 옷에 샌드페이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셔츠는 부드러워지지만 빨리 닳게 된다. 또한 섬유유연제는 세탁기와 드라이어를 망친다. 궁극적으로는 환경에도 피해를 준다. 전문가들이 원하는 한가지 첨가제는 빨래에서 잉크가 나와 다른 빨래를 물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Shout Color Catcher이다. 이것을 넣으면 빨래를 색깔 별로 구분해서 빨지 않아도 된다.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보상금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에게는 보상금 결정서 미발송

###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명	2,5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1,703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재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자 지급

###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 9천만원
- 수형인 :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 4.5천만원      벌금형 : 3천만원

- 후유장애인 :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4~8 등급	9~14 등급
9천만원	7.5천만원	5천만원

- 제외대상 :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서도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청구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서도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회상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서도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송의 5분요가

# 초보자 하체운동 2탄! 처진 엉덩이 살려주고 하체 근력 키워주는 하루 10분 루틴



예전 칼럼과 유튜브 챌린지에서 소개해드린 초보자를 위한 하체운동에 이어 오늘은 처진 엉덩이의 탄력을 높여주고 허벅지 라인은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하체 운동을 알려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신체 부위인 허벅지 둘레살을 빼주는 동작들이니 주 2-3회 이상 반복하면서 동시에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빠른 걸음으로 걷기, 달리기, 수영, 줄넘기, 자전거 등)을 함께 해주시면 좀더 빠른 시간안에 전신 토닝과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자세들은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14) 살빼지는 요가! 앞으로 하체 운동은 이렇게.. 편을 찾아 따라하면 안전하고 쉽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 1. Rear Leg Raise Kick : 힙업, 허벅지 토닝 효과

1단계 선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한 손을 벽에 가져가 중심을 잡고 한다리를 사진처럼 뒤로 보내며 킥해줍니다.  
2단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10-15회 반



복합합니다.

3단계 내쉬는 숨에 다리를 뒤로 길게 뻗으며 힘차게 올려주세요.

4단계 허리를 계속 편상태를 유지, 엉덩이가 수축되는 자극에 집중하며 운동합니다.

5단계 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진행합니다.  
TIP!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도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며 척추를 펴고 다리를 뒤로 차 주셔야 합니다.

### 2. Barre Kick Back : 둔근 강화, 허벅지 바깥쪽 살빼기

1단계 두 손을 벽에 가져가(선택) 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뒤로 보냅니다.

2단계 발을 몸의 중앙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보낸다고 상상하며 올려주세요.

3단계 발을 계속해서 바닥에서 떼 상태에서 가볍게 엷다운을 반복해줍니다.

4단계 10-15회 반복한 후, 방향을 바꿔 반대 다리도 해주세요.

TIP! 엉덩이의 강한 수축을 느끼며 하되, 무리하게 무릎을 들어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



이하세요

### 3. Hip Lunge : 좌골 신경통 완화, 하체부종 완화, 골반 교정

1단계 두발을 매트 앞에 두고 시작합니다.

2단계 오른 발을 뒤로 스탱한 후, 두 무릎을 동시에 접으며 엉덩이를 매트 뒤 사선 밑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며 런지해주세요.

3단계 다리를 바꿔가며 15회 정도 반복합니다. 단 좀더 둔근에 집중하고 싶은 숙련자들은 한 방향을 다 끝내고 반대방향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4단계 손은 허리나 엉덩이, 가슴 앞에 두고



두 골반의 수평을 유지하며 운동해주세요.

TIP! 앞에 놓인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많이 나아가면 무릎이 아플 수 있으니 체중을 앞 발 발꿈치와 중앙에 두고 런지로 앉아주세요.

###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http://www.yogafulness.life)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Shrine, Parish of Corpus Christi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임교자를 위한 고려만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연락처: [stduvalny@gmail.com](mailto:stduvalny@gmail.com)  
617-551-2711

46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duvalny@gmail.com](mailto:stduvalny@gmail.com) / [stduvalnychurch.org](http://stduvalnychurch.org)  
[www.facebook.com/stduvalny](http://www.facebook.com/stduvaln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현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mailto:choisigns@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보스톤시의회 예비선거, 잡음 많던 현역 시의원 2명 탈락

## 리카르도 아로요, 켄드라 라라 의원 예선서 탈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스톤 유권자들은 9월 12일 치러진 보스톤 시의회 예비선거에서 5지역구 아로요, 6지역구 라라 두 명의 진보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키는 이변을 연출했다.

한때 젊은 민주당 진보 시의원으로서 촉망받던 리카르도 아로요와 켄드라 라라 두 의원은 보스톤 시의회

에서 강력한 목소리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린 끝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맛봤다.

최근 두 의원은 시의원 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다른 시의원의 이름까지 호명하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의회 내에서 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실이 동료 시의원의 폭로로 인해 밝혀졌다.

사생활 문제도 겹쳤다. 켄드라 라라 의원은 최근 제한 속도 30마일 존에서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일으켰으나 경찰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 궁지에 몰렸었다. 더구나 몰던 차량은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었으며 무면허 운전이었다.

시의원이었던 아버지 뒤를 이어 당선된 아로요 의원은 비록 부인하

고 있지만 과거부터 이어진 성폭행 추문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라라 의원과 아로요 의원은 12일 밤 9시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했다. 라라 의원은 한 클럽에서 열린 선거 후 파티에서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으나 자신의 최근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도 계속해 민주당 진보 활동가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로요는 자신의 장래 계획을 밝히는 아직 이르다며 새로운 시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내년 초까지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드파크, 로슬린데일, 매타펜 일부가 포함된 제 5 지역구에서는 전 보스톤 경찰 출신인 호세 루이스와 보스톤 시 공무원 엔리크 페펜의 최종 대결로 굳어졌다. 루이스는 마틴 월시 전 시장이 밀고 있으며, 페펜 후보는 현역 미셸 우 시장이 밀고 있다

웨스트 락스베리, 자메이카플레인 포함된 6지역구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인 벤자민 웨버와 IT업계 디렉터였던 윌리엄 킹이 대결한다.

hsb@bostonkorea.com

WATCH: GLOBE TODAY | METRO | SPORTS | BUSINESS | POLITICS | OPINION | HEALTH | NEW HAMPSHIRE | RHODE ISLAND



보스톤 5지역구 시의원 리카르도 아로요 의원과 6지역구 시의원 켄드라 라라의원이 12일 열린 선거후 파티에서 패배를 승인했다. (사진 보스톤글로벌 사진센터)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 학대 · 왕따 · 배신 · 아스퍼거...머스크 "나를 키운 건 역경"

### 월터 아이작슨이 전기 '일론 머스크' 출간...과박하고 미치광이 기질이 있는 위대한 혁신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스티브 잡스' 전기를 썼던 월터 아이작슨과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다.

아이작슨은 2년 넘게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는 일 중독자 머스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와 함께 공장을 걸으며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 결과물 '일론 머스크'(원제: Elon Musk)가 13일(한국시간) 미국과 한국 등 32개국에서 동시 출간됐다.

저자는 과박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그의 성격과 세 번에 걸친 불안정한 결혼 생활, 리스크를 추구하는 사업 스타일 등 그의 공적·사적 생활을 상세하게 담았다. 머스크와의 인터뷰뿐 아니라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등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과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동료들, 가족, 전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머스크란 복잡한 성격의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렸다. 머스크는 1971년, 폭력이 난무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세 살 때 유아원에 갔다. 원장 선생님이 너무 어리다며 만류했지만, 엄마는 뜻을 거두지 않았다.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못 했고, 물어보면 판소리하기 일쑤였다. 어렸지만 자주 몽상에 빠졌다.

다섯 살 때 부모의 뜻을 어기고 그는 두 시간이나 걸리는 길을 혼자 걸어 사촌 집에 갔다. 그만큼 고집 세고 완강했다. 아버지는 몽상가였고,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극단적인 성격을 지녔다.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해 1시간 넘게 머스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머스크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머스크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평생 그러지 못했다. 그도 부친처럼 가끔 "악마 모드"에 빠져들었다.

그는 아스퍼거증후군에 시달렸다. 사회적으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는 발달장애의 일종이다. 그 영향 때문인지 어린 시절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학교에선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 친구도 없었다. 독서가 안식처였다.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책만 읽는 날도 있었다. 니체를 읽고 니힐리즘에 빠졌다. 그는 그 시절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읽고 우주 개척을 평생의 꿈으로 삼았다.

청년 일론 그는 18세에 캐나다로 가 대학에 다니다 3학년 때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으로 편입했다. 물리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 했다. 시간이 날 때면 푸드트럭 중 한 곳에서 점심을 급히 해결하고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배터리에 대한 학술 논문을 읽곤 했다. 졸업 후에는 서부로 갔다. 스탠퍼드 대학원에 등록했지만, 사업으로 방향을 돌렸다.

동생과 함께 정보 제공 회사인 '집투'를 설립한 그는 사무실 바닥에서 자고 YMCA에 가서 샤워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결국 성공해 4년 만에 회사를 매각, 2천2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벌었다. 그 돈을 밑천 삼아 친구 프리커와 함께 1999년 '엑스닷컴'을

설립했고, 이어 페이스북과의 합병을 달성했다. 그러나 그가 신흥여행업 간 사이 페이스북 이사진이 합세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는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축출됐다. 대신 지분에 따른 이익은 얻었다. 2억5천만달러였다. 무일푼에서 시작했던 그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억만장자가 된 것이다.

그는 이제 시선을 우주로 돌렸다. 번 돈을 토대로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 등이 테슬라를 설립하자 그는 640만 달러를 투자하며 테슬라 이사회 의장으로 위촉됐다. 그는 곧 900만 달러를 더 투자했고, 멤버들과 다툼이 생기자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에 뛰어들었다. 그는 그렇게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함께 경영해갔다.

2008년에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스페이스X의 세 번째 로켓 발사가 실패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테슬라도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임직원 월급도 못줄 형편이 됐다. 그는 친구와 가족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 동생인 김벌은 파산 상태였지만, 보유한 애플 주식을 팔며 형에게 돈을 보냈다. 친구 빌리 리가 200만 달러,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 50만 달러를 투자했고, 심지어 테슬라 일반 직원들도 수표를 썼다. 머스크는 이혼 변호사 비용까지 건드렸다. 그는 가진 모든 걸 투입했다.

2017년에도 위기가 왔다.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위기였다. 연인 앰버 허드와의 이별, 그리고 아버지가 의붓딸로 키운 자나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머스크는 우울증과 흥미 상실, 현기증과 조증 사이를 수

시로 넘나드는 시기를 겪었다. 그는 광적으로 일에 몰두하며 이를 극복했다.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결국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끌어올렸다. 그가 소유한 솔라시티, 보링컴퍼니, 뉴럴링크 등도 성장 중이다. 여기에 트위터까지 최근 사들이며 '머스크 제국'을 키워나가고 있다. 책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2013년부터 본격화된 제프 베이조스와의 괴 말리는 우주 경쟁, 테슬라 주식을 공모매도한 빌 게이츠와의 대립,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우크라이나 군에 공급하면서 벌어진 사건, 여러 여인과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빚어진 순탄치 않은 가정사까지 흥미롭게 다룬다.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를 쓴 저자는 머스크의 전기를 쓰면서 몇 가지 면에서 잡스와 머스크는 비슷한 듯 다르다고 평가한다.

저자에 따르면 잡스는 때론 비열했고, 직원들에게 잔인했다.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힘이 있었다. 아이폰과 매킨토시가 나온 배경에는 그와 같은 강한 추진력이 있었다. 머스크는 다른 의미의 잔인함이 있었다. 그건 '과박함'이다. 저자는 질문한다. "만약 그가 과박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비슷한 점도 있다. "그는 직원들을



새로 출간된 일론 머스크 전기

미치게 만들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게 만들기도 하는 '현실 왜곡'을 갖춘, 똑똑하지만 까다로운 보스라는 점에서 특히 그랬다"며 그는 잡스처럼 "동료들 경쟁자들 모두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의 삶은 부모의 학대, 학교에서의 따돌림, 동료의 배신, 외로움, 몽상, 집착, 위험 추구, 그리고 꿈을 향한 강렬한 집념 같은 단어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는 이런 약점들을 일정 부분 극복하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감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비전이 있으며 추진력이 있다는 점에선 탁월했다. 그는 극도로 복잡한 인물이었다. 저자는 그를 미치광이인, '위대한 혁신가'라고 평가한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www.junseo.co.kr**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원시업팀장 김수남**

# 지구 건강검진 결과... "심장마비 임박한 고혈압 중환자"

"9개 항목 중 6개 이상범위"...기후·담수·토지 등 위험 "인간활동 탓 악화...1만년 인류번성 환경 지속할지 몰라"

(서울=연합뉴스) 김계한 기자= 지구 생명유지시스템의 손상이 심각해 이제 지구가 인류의 안전한 활동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실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9개 환경 기준인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가운데 6개가 인간이 야기한 오염과 자연 파괴로 인해 깨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기준선을 넘어 악화된 항목은 생물권 보전과 토지 사용, 기후변화, 담수 사용, 질소와 인의 흐름, 합성 오염물질이다.

연구팀은 이 가운데 건강한 생태계 기능을 포함하는 생물권 보전 항목은 이미 19세기에 기준선을 넘어섰으며 토지 사용 항목은 지난 세기에 이미 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9개 항목 가운데 생물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4개 항목이 이미 고위험 수준이거나 고위험에 근접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기오염과 해양 산성화 항목도 깨지기 직전이지만 오존 파괴를 불러온 해로운 화학물질 퇴출 노력의 영향으로 대기 오존 항목만이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고 연구팀은 소개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코펜하겐대학의 카서린 리차드슨 교수는 지구상에서 지난 1만년 동안은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지속될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리차드슨 교수는 지금의 지구는 위중한 고혈압 환자와 같은 상태라면서 심장마비가 임박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심장마비 위험이 매우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위험한계선 개념을 제시한 요한 록스트룀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공동소장은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더 큰 걱정은 지구의 회복력 감소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록스트룀 소장은 회복력 감소는 지구 온도를 1.5℃ 낮추려는 기후변화 목표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



지구

며 지구 환경이 진짜 티핑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2천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처음으로 지구위험한계선 9개 항목 전부를 평가한 것으로 지구 전체에 대한 첫 번째 과학적 건강 검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앞서 지구위원회도 지난 5월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

구 환경의 8개 지표 중 7개가 이미 '위험 구역'으로 들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구위원회는 기후, 대기오염, 비료 남용에 따른 수질 오염, 지하수, 담수, 미개발 자연환경, 전반적인 자연·인공 환경 등에서 8가지 지표를 설정해 그 정도를 조사했더니 대기 오염을 제외하고 모두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kp@yna.co.kr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당내 · 의료진 만류에도 이재명 14일째 단식...文 "빨리 중단해야"

"한계 왔다" 진단에도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농성 지속...당 관계자 "의지 결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운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을 2주째 이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이제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여전히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단식 14일째인 13일 농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대표실로 옮겼다.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등 스트레스가 가중돼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그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현재 이 대표는 심장박동 센서를 착용하고 외부 의료진의 실시간 확인을 받고 있으며 혈당·체온 등도 수시로 점검 중이라고 한다.

의료진은 "통상 10일에서 14일을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아직 이 대표의 체온·혈당·혈압 등이 심각한 비정상 상태는 아니지만,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증상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7일째부터는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났고 전날부터는 부정맥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천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 상황에서 단

식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실로 단식장을 옮긴 데는 단식을 더 이어가겠다는 이 대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와 면담한 인사들은 입을 모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지낸 노영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에게 "단식이 길어지니까 문재인(전) 대통령께서 정말 아주 깊게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그러시면서 정치가 실종돼버리고 국민 통합보다 국민 분열이 황행하고 국익이나 민생보다는 이념이 우선시된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님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빨리 단식을 중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감사한 말씀"이라면서 "깊이 잘 새겨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당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도 이날 잇달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 등도 농성 현장을 방문해 우려를 전달했다.

geein@yna.co.kr



대표실로 옮긴 이재명 대표

## 與 "단식 동정론 없다. 이재명 단식으로 또 방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방탄'하려 한 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결의대회'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면서 앞장섰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동정론에 기대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

설에서 국민에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돌고 돌아 또다시 '방탄대오'를 갖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증거 운운하며 아무리 선동한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라는 단 하나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단식을 하면서 당내에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켜도 진실의 순간, 구속수감의 순간은 점점 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 지위를 이용해 자당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법방해를 시도하는 여러 정황이 뚜렷하다"

며 "이런 점을 미뤄 판단하면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 '동정론'에 대해서는 "그 단식 동정론은 국민들 사이에선 일어나지 않고 개팔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동정론"이라며 "국민적 반향이 크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대의명분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절대로 구속되지 않겠다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바라는 단식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지도부가 이 대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단식을 방탄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방탄에 여당이 들러리를 서면서 사법절차 방해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 QUICK AND EASY VIRAL SPICY POTATO DUMPLINGS

If you can't get enough potatoes in your life (we know the feeling), you're in for a treat with this spicy potato dumpling recipe that'll turn up the heat in your kitchen!

매콤한 양념과 쫄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매콤 감자 만두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SEP. 15th - SEP. 21st,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b>Lago Grape</b> 라고 포도 HALF BOX <b>\$24.99</b>	<b>Packed Garlic</b> 팩마늘 5 PCS/PKG <b>\$1.99</b>	<b>Yellow Papaya</b> 옐로우 파파야 LB <b>\$1.29</b>	<b>Kabocha</b> 단호박 LB <b>\$1.49</b>	<b>Minneola Orange</b> 미네올라 오렌지 EA <b>\$1.49</b>
<b>Hass Avocado</b> 헤스 아보카도 EA <b>\$0.99</b>	<b>Seedless Orri Mandarin</b> 씨없는 오리 만다린 LB <b>\$2.99</b>	<b>Ginger</b> 생강 LB <b>\$2.99</b>	<b>PULMUONE Tofu</b>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b>3\$3.99 FOR</b>	<b>Sweet Potato</b> 고구마 LB <b>\$2.4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b>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b>\$9.99</b>	<b>Fresh Pork Spare Ribs for BBQ</b>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b>\$3.49</b>
<b>Fresh Pork CT Butt</b>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b>\$5.99</b>	<b>Fresh Boneless Chicken Thigh</b> 생 뼈없는 닭 사태 LB <b>\$2.99</b>
<b>Frozen Beef Short Plate</b> 냉동 우삼겹살 LB <b>\$13.99</b>	<b>Marinated Pork Bulgogi</b> 양념 돼지 불고기 LB <b>\$5.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Frozen Norwegian Mackerel</b> 노르웨이산 고등어 LB <b>\$1.88</b>	<b>Frozen Head-on Shrimp</b> 머리새우 30-40'S/LB <b>\$4.99</b>
<b>TONGTONGBAY Bok Kum Anchovy</b> 통통배 북음멸치 PRODUCT OF KOREA 1 LB/PKG <b>\$14.99</b>	<b>TONGTONGBAY Frozen Squid, Baby Octopus and Octopus</b> 통통배 오징어 1 LB/PKG <b>\$9.99</b>
<b>Frozen Abalone</b> 전복 8-10'S/LB <b>\$14.99</b>	<b>Frozen Snapper</b> 홍도미 LB <b>\$8.99</b>

FR/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 SMART CARD MEMBER ONLY

<b>IMGEUMNIMPYO Icheon Rice</b> 임금님표 이천쌀 PRODUCT OF KOREA 22 LB <b>\$29.99</b>	<b>RAW NATURE Brown Rice</b> 자연담은 현미 15 LB <b>\$14.99</b>
<b>OTTOGI Jin Ramen</b> 오투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b>\$13.99</b>	<b>HAIIO Canned Whelk</b>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b>\$6.99</b>

<b>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b> 국보쌀 옐로우 15 LB <b>\$16.99</b>	<b>OTTOGI Jin Jjambong Spicy Seafood Noodles</b> 오투기 진짬뽕 4.58 OZ X 4 EA/PKG <b>\$7.99</b>	<b>HAIIO Yaki Sushi Nori Premium Roasted Laver</b> 해오름 구운 스시김 50 SHEETS 4.93 OZ <b>\$5.99</b>	<b>SUNGGYUNG FOOD Seasoned /Green Tea Sliced Laver</b> 성경 채채식/녹차 도시락김 0.14 OZ X 16 EA/PKG <b>\$4.99</b>	<b>HAIIOREUM Dumplings</b> 해오름 만두 KIMCHI/VEGETABLE/FRIED 2.65 LB <b>\$4.99</b>
<b>JONGGA Authentic Korean Cold Noodles</b> 증가집 냉면세트 BEEF BROTH, SPICY BIBIM 40.91 OZ (4 SERVINGS) <b>\$6.99</b>	<b>PULMUONE Sweet &amp; Sour Tofu Pouches</b> 풀무원 새콤달콤 유부초밥 11.6 OZ <b>\$5.99</b>	<b>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b> 푸르셀 궁중당면 골드 1.5 LB <b>\$2.99</b>	<b>SEMPIO Wheat Noodles</b> 샘표 진공소면 5.5 LB <b>\$8.99</b>	<b>HAITAI Oh! Yes Chocolate Coated Cake</b> 해태 오예스 11.88 OZ <b>\$3.99</b>
<b>CROWN Snowing Soboro Biscuit</b> 크라운 소복소복 소보로 8.47 OZ <b>\$3.99</b>	<b>DR.CHUNG'S FOOD Vegemil A/B</b> 정식품 담백한 베지밀 에이/달콤한 베지밀 비 6.42 FL OZ X 16 EA/PKG <b>\$8.99</b>	<b>HELLO HOME Tricolor Slippers</b> 헬로홈 삼색 실내화 NAVY/GRAY/RED/YELLOW <b>\$4.99</b> PAIR <del>\$6.99</del>	<b>KOTO Electric Home BBQ Grill</b> 코토 홈 바베큐 전기그릴 47 X 26.5 CM <del>\$49.99</del> <b>\$29.99</b> EA	<b>HELLO! Zipbob Container Set</b> 헬로! 집밥죽 저장용기 300 mL X 4 PIECE <del>\$2.99</del> <b>\$1.99</b> SET

###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 제 봉</b> DIRECTOR 781.654.5281 <small>jebeo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mall>stev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팀장 한 준 희</b>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small>junh@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small>cash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small>christi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신 보 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mall>bo@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	--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다이애나 김</b> 617.271.2007 <small>kdia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줄리 김</b> 578.434.2043 <small>juli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니키 박</b> 617.447.0591 <small>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피터 박</b> 617.780.7835 <small>depeter@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지나 최</b> 578.888.3248 <small>depeter@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여 권 주</b> 401.935.3397 <small>yoonj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시라 파크</b> 617.888.5787 <small>sa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그레이스 김</b> 617.435.7713 <small>grac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현수 김</b> 617.598.8973 <small>hye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사 송</b> 213.303.0397 <small>mi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메기 리</b> 413.507.1402 <small>megle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순호 김</b> 617.913.3369 <small>sungh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최헌진</b> 617.877.0387 <small>he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영 김</b> 781.850.3412 <small>mye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은혜숙</b> 781.899.1214 <small>e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장은영</b> 617.315.1162 <small>j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호준</b> 617.543.5728 <small>jiho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레이철 김</b> 617.852.7489 <small>raei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Tammy Woolfolk</b> 917.224.5610 <small>tamm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Nancy Wang</b> 617.230.9952 <small>nanc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Shirley Zhao</b> 857.231.0316 <small>shirle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Whyan Yu</b> 617.385.2718 <small>why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Xian Dole</b> 413.322.8979 <small>xi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u Jiang</b> 240.449.0117 <small>lu@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ohn Tran</b> 617.408.9862 <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Rebecca Phu</b> 617.833.1083 <small>re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chael Somma</b> 978.873.0376 <small>mik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nda Tu</b> 857.210.8890 <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un Wang</b> 649.276.2623 <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ly Wang</b> 617.338.7212 <small>lil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Crystal Wei</b> 413.208.0255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gela Zullo</b> 774.288.8199 <small>angel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제이코 김</b> 617.598.3409 <small>jeik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강현</b> 857.280.0434 <small>i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thony Tran</b> 857.288.4659 <small>anthon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ra Delangre</b> 413.237.1586 <small>mi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검찰, 뉴스타파 반발 속 압수수색 집행...JTBC·기자도 대상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 보도 의혹 수사...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적용  
뉴스타파 대표 "유례없는 폭거, 악랄한 언론탄압"...2시간20분간 대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  
도훈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  
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  
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  
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  
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  
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  
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  
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  
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  
상진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  
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거지도 압  
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  
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  
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검찰은 2시간20분  
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장 집  
행 직전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라며 "무도한 윤석  
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  
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  
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  
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  
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문제를 공개하려고 예정한  
날을 택해서 뉴스타파를 침탈한 저  
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  
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  
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  
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  
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  
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  
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  
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  
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  
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  
공했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  
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  
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  
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  
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  
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  
했다.

JTBC소속이던 봉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  
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봉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  
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  
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  
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  
고 보도했다.

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  
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  
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기자가 2021년 10월 조  
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  
으로 본다.

봉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  
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  
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  
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  
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  
로 봉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  
러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수사를 위해 뉴스타파와 JTBC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모습.

## 與, '대장동 인터뷰' 방송한 김어준 등 3명 고발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김만배-신학림 대  
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전  
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 등 3명  
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  
원장 유두현)와 가짜뉴스·과담방  
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이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  
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두현 의원은 "이들 3명은 공공  
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  
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  
하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윤석열 대통령)의 명  
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최경



영의 최강시사' 등 라디오 프로그램  
에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보도  
를 사실인 것처럼 과도하게 표현한  
정도가 유독 심했다고 특위는 설  
명했다.

윤 의원은 "(고발 대상자들) 축소  
하고 축소해 우선 3명만을 고발하기  
로 했다"며 "향후 추가로 살펴보고  
TV 시사 제작프로그램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 NEW LISTING

PRICE: \$ 1,190,000

Newton Centre. Newton South High School,  
역세권 걸어서 Green Line T 까지 5분,  
방3, 화장실 2.5, 2790SqFt.

하숙, 홈스테이 비즈니스 최상 위치. 렌트 수익성 좋음.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 골프와 인생 3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 5번홀: 골프 그리고 선택과 결정

골프를 치다보니 골프라는 운동은 매번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연속되는 운동인것 같다. 또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스스로져야 하는 운동이기에 골프라는 운동이 더 매력적 이기도 한것 같다.

자! 이제 5번홀 티 박스에 올라섰다. 5번홀은 약 200야드 언저리에 또랑이 있는 약500야드짜리 파5 룡홀이다. 첫티샷, 어떤 클럽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버를 꺼내 든다. 내 친구 선생이 말 한다. "너 저해저드 넘길 수 있어?" 나는 물끄러미 또랑을 바라보며 속으로 웅얼린다. "또다시 이어진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구나.."

내 드라이버샷은 아주 잘 맞으면 230야드 정도 보통은 190에서 200야드 언저리 물론 백사리가 난다면 이런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하지만 백사리를 전제로 골프라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아주 잘 맞아야 또랑을 넘기고 세컨샷을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또랑을 못 넘기더라도 조금은 긴 세컨샷을 치면 썬셈이 된다. 더욱이 파5 룡홀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번에 그린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5번 아이언 정도 잡고 도랑에 되도록 가깝게 공을 안착 시킨 후 좀 긴 세컨샷으로 또랑을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상황이 이러하네 드라이버를 잡을 것인가 5번 아이언을 잡을 것인가..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 선택은 그래도 역시 드라이버... "인생 뭐있어 무조건 가는거야" 인생에서도 이런 선택을 할것인가에는 내 스스로 의문이 들겠지만 그래도 목숨걸고 치는골프가 아니고 재미로 치는골프니 모험을 선택해 본다. 드라이버 샷을 멋지게 날려본다. "어 잘 맞았다. 공이 하늘 높이 솟구쳤다. 쭈욱 날아간다. 하하 이거

웬일!!! 하지만 공은 여지없이 또랑에 쳐박힌다. 아주 잘 맞는게 아니고 그저 잘 맞는 공이다.

여지없이 별타를 안고 세컨샷 아니 해저드 별타를 먹었기 때문에 또랑 앞에서 서드샷을 준비한다. 안전한 선택을 했다면 또랑 근처에서 두번째 샷을 했을텐데 무모한 선택의 대가로 1별타 후 또랑도 못 넘긴 채 또랑 앞에서 세번째 샷을 하게 된다.

몇번의 헛방질과 백사리로 5타만에 어렵게 그린에 공이 올라왔다. 운 좋게 그나마 칩샷(그린 주변에서 홀에 가깝게 붙이는 샷)을 잘 쳐서 홀컵 근처에 공이 놓였다. 거리는 약 15피트 내외. 또 다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다. 홀컵을 향해 한번의 퍼팅으로 공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홀컵 근처에 공을 굴린 후 두번째 퍼팅으로 공을 넣을 것인가? 한번에 넣으려면 공이 홀컵을 지나가야 한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다. "버디(Birdie: 규정타 보다 한타 적게 치는 것)가 보기(Bogey: 규정타 보다 한타 많이 치는 것)된다" 즉 욕심 부리다 본전도 못찾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선택도 역시 골퍼 스스로의 선택이다. 나는 한번에 넣는 선택을 했다. 결과는? 하하, 홀컵을 지나 두번은 커닝 세번에 공을 넣어 트리플 보기로 5번홀을 마무리 했다.

자! 이제 5번홀 내 골프 플레이의 선택에 대해 분석해 보자. 첫번째 티샷 1번 드라이버샷의 선택이었다. 1번 드라이버는 골퍼채 중에 가장 길이가 길고 묵직한 헤드가 달린 채이다. 즉 다루기 힘들고 그만큼 잘 맞을 확률이 떨어지는채인 것이다. 여기에 내 실력까지 더한다면 드라이버로 또랑을 넘길 확률은 잘 해야 10% 미만. 이에 반해 아이언은 드라이버 보다 길이도 짧고 헤드 각도도 어느정도 있어 드라



이버 보다는 훨씬 다루기 쉽다. 내 실력을 감안한다 해도 또랑 근처로 갈 확률은 백사리를 제외 한다면 못해도 60% 이상...

마지막 퍼팅의 선택, 한번에 넣느냐 홀컵 근처에 붙여 두번에 넣느냐! 경사면이나 내 실력을 고려할 때 한번에 넣을 확률은 높게 잡아 20%, 공을 홀컵에 붙여 두번에 넣을 확률은 70% 이상 하지만 나의 선택은 한번에 넣는것...

나는 모든 선택에서 확률이 낮은 모험적인 선택을 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 이라고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하는 이번 골퍼 라운딩이 내기였거나 아니면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경기였다면 나의 선택은 안정된 선택으로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이번 라운드에서 단지 달콤한 미래를 생


각하며 모험을 선택을 했을 뿐이며 그 모험에 대한 댓가는 해저드 별타와 몇차례 퍼팅을 더한 것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골퍼나 인생이나 만약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만약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이 모두 성공했다면 나는 트리플보기가 아닌 파로 이번 홀을 마무리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골프에서 '잘못된 선택'은 없다. 단지 선택에는 언제나 확률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선택할 것이 아니면 높은 확률에 따라 안정된 선택을 할것인가는 온전히 골퍼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다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골퍼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명심할 따름이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제 3회 NE지역

# 동해 · 독도 지명표기

## 조사·활동보고 공모전



### 공모 주제

- 뉴잉글랜드 지역 교과서, 공공 장소 지도, 출판물, website 등에 표기된 동해 (East Sea), 독도 표기 실태를 조사 후 체험한 활동 및 개선 결과 소개
- 사이버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 내용

### 일정

- 신청등록마감 2023.10.08
- 작품제출마감 2023.11.04
- 시상식 2023.12.02 동요합창제 직전 보스톤 한인 교회

### 참여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K이상 12학년
- 개인 참여원칙(개인당 1 작품 참여)
- 외국인 친구와 참여할 경우 특별 시상

### 접수방법

- Google form 접수(오른쪽 상단 QR 코드)
- 접수문의  
naksne.secretary@gmail.com  
lovelykids76@gmail.com

### 학년별 공모 작품유형

- K-2학년: 그림일기 내용 30자 이상
- 3-5학년: 포스터 12x18인치 100자 이상
- 6-8학년: 에세이  
12 font, double space, 2 페이지 이상
- 9-12학년: 보고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파일형식 mp4, 본인 얼굴 2/3 이상 삽입, 최대 5분, 저작권 위배되는 음악 삽입 불가
- 교사: 수업내용 보고서 (자유형식)

### 시상내용

- 전체 대상 '나라사랑(총영사상)' 1명
- 부문별 대상 '동해지킴이상, 독도지킴이상'
- K-12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 전체 대상 배출 학교 시상
- 교사 수업내용 보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참가자 전체 시상

### 심사기준

- 교과서, 지도, 출판물, 지역, 공공장소, website등 조사 및 시정 노력
- 시정 결과
- 주제 적합성 (내용 이해 및 활동 확장성)
- 작품 완성도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후원



외교부



NAKS-NE  
이사회 및 교장단



주보스톤총영사관

보스톤코리아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54) 실패할 수 있는 투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투자의 현인인 워런 버핏은 '인생의 성공은 수많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선택은 많이 할 필요가 없다(You only have to do a very few things right in your life so long as you don't do too many things wrong)'라고 언급했다.

주식 투자하면 대부분 일반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선 고려한다. 그러나 투자 실패는 좋은 곳에 투자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대부분 투자 실패는 '해서는 안 되는 투자'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투자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수많은 기업 중에서 몇 종목의 특정한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뮤추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에게도 어렵다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다. 매년 발표되는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참고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제프리 웨스트(Geoffrey West)의 책

(Scale)에서 언급한 내용 몇 가지를 인용해 본다. 1950-2009년 동안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던 기업이 28,853이었지만 2009년 말에 약 80% 기업이 사라졌다. 햇수로 30년 지나면 약 5% 정도만 기업이 생존한다. 미국 기업이 생존하는 평균 기간은 약 10.5년에 불과하다. 1955년 포천 500대 기업에 등록되었던 기업이 생존한 확률은 단 12%에 불과하다.

일반 투자자는 소수의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한 후 대박을 기대하지 말고 주식시장 전체에 꾸준히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명보험은 돈 버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경우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수단이다. 생명보험을 파는 에이전트는 보험을 팔기 위해 좋은 투자라고 설명하지만, 숨어있는 내용은 예정표(Illustration)처럼 되기가 매우 어렵다. 보험은 보험, 투자는 투자로 분리해야 한다.

\*어뉴이티(Annuity)를 파는 사람은 원

금이 보장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대로 수익을 받는다는 무지개 같은 설명을 한다. 이런 이유로 어뉴이티가 팔린다. 어뉴이티의 가장 큰 문제점 두(2) 가지는 낮은 수익률과 높은 경비이다.

S&P 500 Index란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종목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지난 10년 연평균이 12.5%이다. 투자한 자금이 거의 3배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같은 기간 어뉴이티의 수익률은 매우 낮다(떨어진다). 어뉴이티를 소유한 사람들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어뉴이티에서 부과되는 여러 가지 경비를 영어로 나열해 본다. Surrender Charge, Mortality & Expense Risk, Administrative Fees,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Rider,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Rider, Fund Expense for Underlying Funds, 등으로 부과되는데 어뉴이티 투자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월세 받는 금

액만 생각하지,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비용, 재산세, 보험료, 수리비, 수입에 대한 세금, 등 모든 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투자는 자산이 부동산과 함께 묶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급한 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한다. 처분할 때 그동안 받았던 감각상각비 혜택을 물어내야 한다.

부동산투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투자이다. 은퇴한 후 생활비나 소일거리로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공자님 말씀도 '인생은 간단한테 우리들 자신이 복잡하게 만든다(Life is really simple, but we insist on making it complicated)'고 말했다. 성공하는 투자도 어렵지 않다. 투자자들 본인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남모(南毛)와 준정(俊貞)(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먼저 삼국사기(권 제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7년)에 <화랑을 받들다>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기록을 인용해 본다. 진흥왕37년은 576년이다.

<37년 봄에 처음으로 원화(源花)를 받들었다. 처음에 임금과 신하들이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심하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를 지어 놀게 하고 그 행실을 관찰한 연후에 발탁해서 등용하고자 하였다. 마침내 미녀 두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남모(南毛)이고, 또 한 사람은 준정(俊貞)으로 무리 3백여인을 모았다. 두 여자가 아름다움을 다투고 서로 질투하였는데,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되자, (남모를) 끌고 강물에 던져 죽였다. (일이 발각되어) 준정은 사형에 처해졌고, 무리들도 사이가 나빠져 흩어졌다.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선발하여 곱게 꾸미고 화랑(花郎)이라 이름하고 받들었는데,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혹은 도의(道義)로써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써 서로 즐겨서 산과 내를 찾아노닐며 멀리까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사림들의 그릇됨과 올바름을 알게 되어, 훌륭한 자를 발탁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 이런 까닭에 김대문(金大問)의 화랑세기(花郎世紀)에는

“현명한 보필자와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이로부터 생겨났다(현좌충신(顯佐忠臣)이수(以) 양장용(良將)이생(生)賢(佐)忠(臣)從(此)而(秀)良(將)勇(卒)由(是)而(生), 현좌충신(顯佐忠臣)이수(以) 양장용(良將)이생(生)賢(佐)忠(臣)從(此)而(秀)良(將)勇(卒)由(是)而(生), 현좌충신(顯佐忠臣)이수(以) 양장용(良將)이생(生)賢(佐)忠(臣)從(此)而(秀)良(將)勇(卒)由(是)而(生)” 라고 하였다.

최치원(崔致遠)의 난랑비(鸞郎碑) 서문(序文)에는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었는데, 풍류(風流)라고 이른다. 교화(教化)를 행하는 근원(根源)에 대해서는 선사(仙史)에 자세하게 갖추어 있는데, 실로 이에 삼교(三教)를 포함하여 중생(衆生)들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忠)이라고 하는 것은 노릇(奴)나라 사구(司寇)의 가르침이다. 무위(無爲)의 일에 처하고 불언(不言之)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周)나라 주사(柱史)의 본뜻이다. 갖가지 악(惡)을 행하지 말고 갖가지 선(善)을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축건태자(紇乾太子)의 교화(教化)이다” 라고 하였다.

당(唐)나라 영호(靈狐)의 신라(新羅)국기(新羅國記)에는 “귀인(貴人) 자제(子弟) 가운데 아름다운 이를 선발하여 분을 바르고 곱게 꾸며 이름을 화랑(花郎)이라고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떠받들며 섬겼다” 라고 하였다.)

진흥왕 삼백(三)은 540년(7세 - 삼국사기, 15세 - 삼국유사)에 즉위하였다. 그리고 인재들을 바르게 등용하려고 젊은이들을 무리지어 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여자(女)로 하면서 원화(源花)라고 이름하였다. 수장이 한 명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미녀 두 명(二)이

가보니 문제가 생겼다. 시기와 질투는 죽음을 불러왔다. 준정은 남모를 살해하였고 준정 역시 사형당했다. 그리고 원화(源花)도 폐지되었고, 즉남(卽南)도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여자(女)에서 남자(男)로 바꾸어서 화랑(花郎)이라고 하였다. 576년 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런데 576년은 진흥왕이 사망한 해이다. 그리고 신라인 김대문의 화랑세기에는 화랑의 설치 년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540년에 설치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화랑세기의 기록으로 보면 576년에는 이미 7세 풍월(風月)주인 설원(雪元)이 화랑의 우두머리로 남도(南道)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초대 풍월(風月)주 위화(尉化)랑의 부모를 보면, 아버지는 선심(善心)공(頌心公)이며 어머니는 벽아(壁阿)부인이다. 제21대 비처(比處)왕(소지왕, 재위기간 471 ~ 500년)이 어느날 날이군(현 경복(景福)영주)으로 순시를 갔었는데 그곳의 파로(波路)가 아름다운 자신의 딸 벽화(壁化)를 왕에게 바쳤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잠을 못이룬 왕은 몇번이나 왕래를 하다가 500년 어느날 벽화(壁化)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벽아도 함께 데리고 와서 후궁(后宮)으로 삼았다. 아마도 곧 벽아는 섬신(頌心)공에게로 출가하였고 위화(尉化)랑이 태어났다(자세한 내용은 1세 풍월(風月)주 위화(尉化)랑조에 기술되어 있다). 위화(尉化)랑의 아버지 선심(善心)공과 파로(波路)가 동일인이라는 설도 있는데, 선심(善心)공의 할머니가 청아(靑我)이고, 청아(靑我)의 부모가 박제(朴濟)상과 치술(池述)공(공)이기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화(尉化)랑의 생몰년 기록은

없지만 어머니 벽아는 500년 전에 이미 과년(瓜年)한 딸 벽화(壁化)가 있었다. 벽아(壁阿)의 가임(加孕)연령을 봤을때 위화(尉化)랑은 늦어도 510년 전에 태어났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30세 무렵에 초대 풍월(風月)주가 되었다(삼국사기의 기록대로 576년에 화랑(花郎)이 설치되었다면 위화(尉化)랑은 66세에 풍월(風月)주가 되었다!). 또한 2세 풍월(風月)주 미진(美津)부는 525년에 출생하였고, 551년(진흥왕(眞興王)12년) 거칠부(居叱夫) 등 7명의 장군(將軍)과 함께 백제(百濟)와 연합하여 고구려(高句麗)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3세 풍월(風月)주 모랑(莫良) (제23대 법흥(法興)왕과 후궁 보공(保公)주의 아들이며, 원화(源花) 남모(南毛)의 동생이다)는 555년 비사(毗沙)를 유람(遊覽)하던 도중 갑자(甲子)기 병을 얻어 요절하였다.

그리고 5세 풍월(風月)주 사다(沙多)함은 562년(이는 삼국(三國)사기의 기록이고, 화랑(花郎)세기에는 561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사부(伊沙夫)가 대가(大加)를 공격할 때 15~6세의 나이로 화랑(花郎)도들을 이끌고 귀당(貴堂)비장(貴幢)장(將)으로 참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朝鮮)시대에 와서 김종서(金宗瑞) 등이 지은 고려(高麗)사절(使)요에도 화랑(花郎)이 540년에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화랑(花郎)의 정확한 설치(設)년대의 기록은 없지만 여러 사료(史料)를 종합(綜合)해보면 540년에 설치되었고, 원화(源花)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의 사망(死)사건도 576년이 아닌 540년에 일어났을 개연성(可能性)이 크다.

참고문헌: 삼국(三國)사기, 삼국(三國)유사, 화랑(花郎)세기-신라(新羅)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金大問) 저, 이종욱(李鍾旭) 역주해, 소나무), 화랑(花郎)세기-또 하나의 신라(金태식(金泰植), 김영사), 고려(高麗)사절(使), 한국(韓國)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삼진어묵**

SEP. 14<sup>TH</sup> - SEP. 28<sup>TH</sup>, 2023

Premium  
**SAMJIN Fish Cake**  
 삼진 정성가득 모듬어묵  
 2.23 LB/PKG

어묵은  
 역시 삼진어묵



**\$7.99**

**BEST DEAL**  
 Every Day

**LION**

SEP. 14<sup>TH</sup> - SEP. 21<sup>ST</sup>, 2023

**LION Hand Wash**  
 아이! 깨끗해 손비누

UP TO  
**67% OFF**



Korea's No.1\* Hand Wash

\*Kantar/Worldpanel Division Based on Domestic Furniture Panel Data (Handwash Brand, 2013 - 2022)

Hand Wash Refill



6.7 OZ (200 mL)  
 Pure, Lemon

~~REG. \$2.99~~

**\$1.00**

EA

Hand Wash Bottle



8.4 OZ (250 mL)  
 Pure, Lemon, Mint

~~REG. \$4.99~~

**\$2.00**

EA

Hand Wash Refill



20.2 OZ (600 mL)  
 Pure, Lemon

~~REG. \$6.99~~

**\$3.00**

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 고국에서 개최한 잼버리를 다녀와서

진태원(청소년 캠프 디렉터)

지난 여름 새만금에서 전세계 150여 개국 45,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석한 국제적인 청소년 행사에 시설 점검 책임 부분부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고국에서 보이 스카우트 활동을 오래 한 인연으로 해서,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봉사해 달라는 요청을 한국 지도자의 자격으로 참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준 행사였습니다. 물론 무더위와 태풍 영향, 행사 주관을 둘러싸고 정부, 지방정부, 스카우트 연맹이 서로 소통이 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잼버리 행사안에서는 일생에 한 번 밖에 얻을 수 없는 우정, 소통, 이해가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저는 두가지 문제점을 나누고, 저의 제안의 글을 올립니다.

첫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체력과 인내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주체측 나라의 참가 인원 수가 1,500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 참가해서는 안되는 초등학생(킵스카우트)들까지 무리하게 모집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뜨겁고, 습한 날씨에 어떻게 천막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잼버리 시작 다음 날부터 퇴영

하기 시작했고, 잘 훈련되고 준비된 스카우트 대원들 이외에는 10일 동안은 갯벌에서 버티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멀리 영국에서는 4,500명의 대원과 지도자가 참석했습니다. 스카우팅을 분명히 끝리는 매력이었습니다.

본래 스카우트 프로그램은 Friendship과 Hardship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느끼고 얻는 성취감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꼭 필요한데, 이점이 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이번 행사의 주관자들, 의사 결정권자들이 호텔에서 먹고자는 올림픽이나 박람회 같은 일반 국제 행사는 많이 경험했을 지는 모르지만,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매일 식자재를 배급 받아, 직접 식사를 해먹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지내는 스카우트 행사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자주 치워주는 인력도 준비하기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잼버리 행사 주관의 명실 상부한 책임자인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참가 및 파견된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거나, 마땅치 않았어야 할 일들을 소홀히 넘겨버려 파행

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과부나 전라북도에게 잘못된 책임을 묻고 있지만, 한국 스카우트 연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학교에서 등 떠밀려 나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학교 안에 4H Club, 적십자, 도덕재무장 운동, 스카우트 운동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나라에서 청소년 운동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30만 단세가 지금은 4,00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눈을 우리 동네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뉴 잉글랜드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직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일 학교나 한국 학교밖에 없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한인 자녀들은 개인적으로 운동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합니다.

저는 뉴햄프셔에서 오랫동안 미국 스카우트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한인 이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뉴 잉글랜드의 자연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장입니다. 초등학교 5년 이상 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지도자로, 봉사자로 참여해 주시면, 우리도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이상 야외 활동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크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뉴햄프셔에 있는 캠프장을 Homebase로 해서 주말에, 여름에, 겨울에 아이들에게도 전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성인 자원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5명 10명이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강으로, 호수로, 바다로 ...

연락 주시고, 아이디어 주세요.  
Camp Director Taewon Jin  
taewon.jin@gmail.com 603-205-6679  
Camp Red Tailed Hawk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 10 Brace Ave, Hooksett NH 03106

9월 17일 - 9월 23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b></p> <p>● 운수: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 애정: 신뢰감은 자기의 틀 속에 상대를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틀을 버리고 상대의 마음 속으로 가려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소띠   서로간의 대화가 통하고</b></p> <p>● 운수: 직장인인 경우윗사람의 도움으로 승진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시험 및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데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확장하고 넓혀 가는 즐거움이 있으니 이사를 해도 좋겠습니다. 매매도 이익이 따라주고 쉽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서로간의 대화가 통하고 행복합니다. 활기가 있고 의욕적인 생활이 전개될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0, 23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범띠   손실을 가져오게 될</b></p> <p>● 운수: 친한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동업과 같은 것은 자칫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 금전: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 애정: 바람이 가슴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만 같은 주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토끼띠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b></p> <p>● 운수: 냉정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시기를 잘 잡으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 금전: 현실에 만족하고 재물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 생각은 가능하다면 억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어째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원망부터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말을 했기에 이런 말을 듣게 되나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7, 22일 길일. 21, 23일 주의.</p>	<p><b>용띠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b></p> <p>● 운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주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늘어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매매도 빠르게 성사되고 생각보다 큰 이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이성 교제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도록 하세요. 용기가 있는 자만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7, 23일 길일. 18, 22일 주의.</p>	<p><b>뱀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는</b></p> <p>● 운수: 모든 것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경우에 맞게 일을 처리하면 모두가 잘 따라줄 것입니다. ● 금전: 금전에 이득이 있으니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 사업의 계획을 바로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세요. ● 애정: 가까운 사람이 다리가 되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주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0, 21일 길일. 17, 23일 주의.</p>
<p><b>말띠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b></p> <p>● 운수: 개업의 시기로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매매할 때는 철저하게 서류를 잘 챙기고 함부로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 금전: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금전이 생기더라도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말 한 마디에 쉽게 속상해 하고 말 한 마디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양띠   상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b></p> <p>● 운수: 소송문제나 사업상의 경쟁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 금전: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문서와 관련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 애정: 남의 말보다는 사랑하는 이의 심중을 잘 살피는 사려 깊음이 있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원숭이띠   좋은 조언도 받는</b></p> <p>● 운수: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고 투자할 분야에 대한 좋은 조언도 받게 됩니다. ● 금전: 성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 생각지 못한 커다란 이익을 얻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주입니다. ● 애정: 미뤄오던 이성문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애정의 주기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3일 길일. 17, 20일 주의.</p>
<p><b>닭띠   지키면서 가꾸어 나가야</b></p> <p>● 운수: 여태까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쌓아올린 탑을 지키면서 가꾸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금전: 지금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잃느냐 얻느냐는 자신의 머리회전과 노력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애정: 내게 돌아오는 이 말이 내가 던진 어떤 것 때문이라 생각해보세요. 아주 많은 오해나 원망이 풀릴 길이 열립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개띠   욕심은 금물</b></p> <p>● 운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금전: 금전이 생긴다 하여 영뚱한 일에 과도한 욕심이 부리면 재물이 도로 사라지게 되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 애정: 적극적인 연애를 생각해 보게 되는 주입니다. 이미 가정이라는 울안에 갇혀 있는 몸이므로 꿈만 꾸다가 마는군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돼지띠   즐거움이 함께 하는</b></p> <p>● 운수: 자신의 능력으로는 힘들겠으니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듣고 힘을 빌려서 실행에 옮기세요. 사업은 번창하겠습니다. ● 금전: 오랜 기간 원하던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이익도 발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즐거움이 함께 하는 주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애정이 듬뿍 담긴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1970년대식 스릴러를 품은 블랙코미디 ...영화 '거미집'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지운 감독의 신작 '거미집'을 보고 나면 두 편의 영화를 한 번에 본 듯한 기분이 든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거미집'은 그 안에 또 한 편의 영화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1970년대 초 한국의 영화감독 김열(송강호)이 '거미집'이란 제목의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다.

김열이 배우, 스태프와 좌충우돌하며 영화를 찍는 이야기가 블랙 코미디라면, 흑백 영상으로 나오는 영화 속 영화는 스릴러의 느낌이다. 두 개의 이야기가 주머니 받거나 교차하면서 영화가 전개된다.

'싸구려 치정극이나 만든다'는 평론가들의 혹평에 시달리는 김열은 '거미집'이란 영화를 다 찍어놓은 어느 날 이 영화에 관한 꿈을 꾸다.

꿈에서 본 대로 영화의 결말 부분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거란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딱 이틀이면 된다"며 재촬영을 밀어붙인다.

그런 김열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작사 '신성필름' 대표 백 회장(장영남)은 '걸작'이란 말에 냉소적인 반응부터 보이고, 이민자(임수정), 강호세(오정세), 한유림(정수정) 등 주연 배우들은 다른 작품 촬영 스케줄이 꼬인다고 입을 특 튀어나온다.

신성필름의 후계자이자 재정 담당인 신미도(전여빈)가 김열을 지지하고 나서지만, 그도 김열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는지는 알 수 없다.

유신정권 시절인 당시 정부의 검열도 걸림돌이다. 공무원들은 제집 드나들듯 촬영장에 찾아와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다.

고지식해 보이는 검은 빨데 안경에 트



렌치코트를 입은 김열은 영화밖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같다. 세트장에 불이 번져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와중에도 그는 카메라로 찍은 장면이 제대로 나왔는 지에만 정신이 쏠려 있다.

좌절에 빠진 김열이 세상을 떠난 스승인 감독의 환영(幻影)과 대화하는 장면은 예술가의 고뇌를 보여주는 듯하다. "내가 재능이 없는 걸까"라는 김열의 물음에 신 감독은 "자신을 믿는 게 재능"이라며 "그걸 믿고 가라"고 격려한다.

김열이 순수하기만 한 예술가인 건 아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엔 스승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한 열등감과 세상이 인정하는 걸작을 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있다

그렇게 욕망으로 가득하고 결함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빛어내는 예술이 영화라고 김지운 감독은 말하고 싶은 걸까.

어쩌면 영화는 우리 인생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술 장르인지도 모른다. 꿈은 항상 현실에 부딪히고, 삶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시간이 흐르면 그 꿈마저도 일그러진 욕망의 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자기의 심에 빠져들기도 한다.

'거미집'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영화에 깔린 건 결국 영화 예술에 대한 김 감독의 깊은 사랑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 블랙핑크, 美 MTV 어워즈 '올해의 그룹' 등 2관왕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올해의 그룹' 등 2관왕을 기록했다.

12일(현지 시간) MTV VM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블랙핑크가 '올해의 그룹', '베스트 안무'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수상하게 된 '올해의 그룹'은 2019년 신설된 분야로, K팝 그룹 등이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에서 제외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부문이 만들어진 이래 지난해까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4년 연속 수상해왔



며 블랙핑크가 그 뒤를 이어 올해의 주인공이 됐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은 솔로곡 '세븐'으로

비윤세, 빌리 아이리시, 두아 리파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송 오브 서머'의 주인공이 됐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 반대말이 꼭 억압, 속박, 핍박, 탄압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질 때의 시점에서 본다면 말이다. 특별히 어떤 관계를 들추지 않더라도 가정 안에서의 부부 관계에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배려하기보다는 눈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던가.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부모의 안절부절 못함이 답답함일 테고, 부모의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마음에서 늘 편치 않은 마음의 짐으로 있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고 삭히며 겪는 일일 것이다.

삼십 년을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다. 그것은 우리 또래의 한국 부부들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부장적 남편들이 몇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한국에 사는 한국 부부들의 모습과는 달리 미국에 사는 한국 부부들의 모습이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다. 물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상냥하게 잘하는 아내들이 여럿 있

기는 하다. 이렇게 이런저런 분야가 다른 모임에서 만나는 한국 부부들을 보면서 내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다.

그것은 무겁게 짐잡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쓸데없이 가볍지 않아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삼십 년을 살다 보니 특별히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서로에게 조금씩 물들어 베어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베어진 냄새가 싫지 않고, 그렇게 또 함께 오랜 세월 보내고 시간이 지나니 나도 모르게 그 향이 좋아진 것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며 굶은 내, 고운 내 다 맡으며 마음에서 썩고 또 썩어 삭혀진 내음이지 않을까 한다. 남편인들 어찌 아내인 내가 늘 굶기만 했을까.

혹여, 여행으로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가 끔은 그 베어진 냄새가 생각나고 그 향이 그리워지는 것을 보면 부부라는 것이 참으로 '신묘막측(神妙莫測)' 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하늘이 주신 축복임을 알기에 말이다. 신묘막측(神妙莫測)의 뜻을 찾아보니 그 뜻은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영묘함'이라고 한다. 그렇

다, 서로 너무도 다른 사람이 만나 함께 산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울까. 그런데 삼십 년을 살고 보니 이제는 하늘이 주신 그 심오함의 뜻을 조금은 짐작할 것 같다. 내게 부족한 것을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이치를 말이다.

'신묘막측(神妙莫測)' 시편 139:14 내가 주께 감사해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고백이 내 오늘의 기도가 되었다. 그렇다, 이렇듯 지난 나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내 남편과 세 아이를 떠올리며 나는 오늘의 감사가 절로 차오르는 것이다. 어찌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늘의 도우심이 없으셨다면 어찌 오늘 여기서 나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도 덜도 아닌 오늘 만난 인연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함으로 눈물이 고인다.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세 아이를 대학을 졸업시키고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사는 것으로 늘 감사함으로 있다. 나의 자유 여행은 세 아

이들이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하고 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세 아이를 바쁘고 정신 없이 키웠다. 그 바빴던 시간을 지금에 와서야 남편과 함께 둘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세 아이를 키우며 즐겁고 행복했던 그리고 버겁고 힘들었던 것들을 혼자 가 아닌 둘이서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다는 어떤 이도 아닌 자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즐겁고 행복해지는 시간이다.

자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의 반대말이 굳이 억압이나 속박, 핍박, 탄압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찌면 자유의 반대말을 굳이 말하라면 방종이 아닐까 싶다.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도 그랬으며, 여행을 좋아하는 내가 혼자 여행을 하는 중에도 그랬다. 물론, 앞으로 자유로운 여행을 하는 나는 여전히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자유에 속한 책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든 그렇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가을 들을 보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씨를 뿌리고 가꾸고 나면 가을엔 수확한다. 한반도 한국인들은 삼천번을 씨뿌리고 수확했을 터. 새로 바뀐 광화문 글판인데, 신달자 시인이다.

삼천 번을 심고 추수한 후의 가을 들을 보라 이런 넉넉한 종이가 있다  
(신달자, 가을 들 중에서)

작년 초여름이었다. 아내는 뒷마당 한구석을 갈아엎었다. 밭이

라기엔 너무 작아 손뼉만한 했고, 햇볕도 제대로 들진 않았다. 그러나 재미삼아 깨 몇줄기를 심었다. 깻잎을 따서 먹을 요량이었던 거다.

흠쩍 일년이 흘렀다. 그런데 깨 나무에서 푸른 깻잎이 다시 돌아났다. 손보지 않았고, 거름은 커녕 물을 준 일도 없는데도 말이다. 한번 심었는데, 두번을 얻어 먹은 거다. 남은 장사가 되었다만 깻잎은 그닥 풍성하진 않았다.

그러나 수확??한 깻잎은 유난히

싱싱하다. 맛이야 어디 비할 수가 있으랴만 장아찌로 담을 수는 없었다. 수확량이 너무 적었으니, 날 것으로 먹기에도 부족하다.

역시 해마다 다시 심어야 한다.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가수 남진의 오랫동안 가요도 있다. 제목은 님과 함께 이다. '봄이면 씨를 뿌려 가을이면 풍년들고...' 가사대로 라면 일년에 한번만 수확할 수 있다.

이모작二毛作도 있긴 하다. 일년에 두번을 거둘 수 있는바, 같은

농지에서 여름엔 벼농사요, 겨울과 봄엔 보리농사를 짓는 걸 말한다. 하긴 남방 어느나라에선 한해에 세번을 심고 거둬 먹을 수 있다고도 한다. 이모작을 넘어 삼모작도 가능하다는 거다.

요즈음엔 인생도 이모작이 가능하단다. 아니 인생 이막이라 해야 할까. 정년퇴직 후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다. 수명이 길어 지고 삶에 남은 시간들이 늘어났기 때문일 터. 인생 후반전, 아니 이모작에서 더욱 풍성한 수

확이 있을 것인가? 지나친 욕심인가?

나야 삼모작은 커녕 이모작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년에도 깻잎이 나올 것인가. 그것만 궁금하다.

모두 풍성한 가을 맞이 하시라. 그런데 미국에선 가을 들판을 볼 수는 없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마태 13:37)

PRESENTED BY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개천절



*Korea Day!*



TIME & PLACE

Friday, October 6, 2023  
11 AM to 3 PM  
MA State House - Great Hall



EVENT INFO

Celebrate Korean culture with us! There will be free food, music, and entertainment.



RSVP

<https://2023KACLKoreaDay.eventbrite.com>

SPONSERED BY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 AND REP. TACKEY CHAN



<https://kacl-ne.org/programs/korea-day>  
[newenglandkacl@gmail.com](mailto:newenglandkacl@gmail.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뇌혈관 질환 예방법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뇌혈관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권정택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혈관질환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뇌혈관은 미지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한 번도 뇌혈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반복되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불안감이 싹트기도 한다.

암 검사는 여러 번 받았지만 뇌혈관 검사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현실! 아직 젊으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뇌혈관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괜찮을지 궁금하다. 연령별로 뇌혈관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뇌혈관질환 단계 예방법**  
뇌혈관질환을 예방하려면 뭘부터 해야 할까?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남택균 교수는 뇌혈관 질환 예방법을 크게 3 단계로 나누어서 소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다. 검진을 통해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질환 등을 빨리 발견해서 관리하거나 치료받아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뇌혈관 검사다. 대표적인 검사로는 CT혈관조영술과 MRA(자기공명혈관영상), 카테터 뇌혈관조영술이 있다. 뇌혈관 질환의 예방적 차원에서 주로 활용하는 검사는 CT혈관조영술과 MRA다. 카테터 뇌혈관조영술은 입원해서 받는 검사이며, CT혈관조영술이나 MRA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자세하게 확인하려고 실시한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예방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다. 남택균 교수는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으로 금연을 꼽고 싶다.”며 “뇌혈관에 치명적인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약은 항혈소판제(아스피린, 실로스타졸, 클로피도그렐 등)가 있다. 예방 약물 복용은 사람에 따라 득과 실이 달라서 뇌혈관 전문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 교수는 “뇌혈관 질환 예방 1 단계에서 언급한 질환인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이 필요한 경우는 조기에 꾸준히 복용하여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뇌혈관이 궁금할 때는 CT혈관조영술 or MRA

현재 나의 뇌혈관 상태를 알고 싶다면 두 가지 검사 중 한 가지를 골라 받으면 된다.

**CT혈관조영술** | CT혈관조영술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뇌혈관 검사다. 남택균 교수는 “보통 머리와 목 부위를 같이 찍으며 뇌혈관의 구조와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라고 말한다. 혈관이 좁아져 있지는 않은지, 터질만한 동맥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장점:** 혈관이 선명하게 보인다. 머리와 목 부위를 같이 찍으면 갑상선, 척추의 이상도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시간이 1~2분 정도로 짧다.

**단점:** 방사선에 노출된다(검사 목적으로 노출되는 정도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 전에 6시간 금식을 해야 한다. 드문 경우지만 검사에 필요한 조영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

**MRA(자기공명혈관영상)** | MRA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RI 장비로 하는 검사법이며, 움직이는 혈액에 특별한 기법을 적용해 뇌혈관만을 영상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뇌혈관의 자세한 형태, 혈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혈관성 치매, 미세출혈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장점:** 조영제를 쓰지 않고 방사선 노출이 없다. 검사 전에 금식을 안 해도 된다.

**단점:** CT혈관조영술에 비해 검사 비용이 많이 든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10~15분). 경우에 따라 혈관이 좁아진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일 수 있다.

뇌혈관 연령별 체크법

남택균 교수는 “지금까지 뇌혈관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50세 전후에 CT혈관

조영술을 하는 게 좋고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다면 10년 후인 60세 전후에 MRA나 CT혈관조영술 중 하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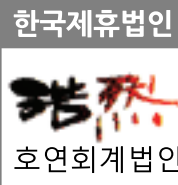
60세 전후인 경우 검사할 때 MRA를 고려해 보라는 이유는 MRA는 CT혈관조영술에 비해 퇴행성 변화를 확인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60세 전후에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었더라도 그 후로는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가족 중에 뇌동맥류, 뇌출혈 등과 같은 뇌혈관 질환 환자가 있다면 30~40대라도 뇌혈관 검사를 통해 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인이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BUSAN -  
**KOREA**



- 2030 -  
**WORLD EXPO**



@ NOV. 2023



KITA 무역협회 선정

# 우수 상품 모음전

오직 H 마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우수 상품!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presents  
**BEST OF SMALL BUSINESS**

Event Date: SEP. 15th - SEP. 28th, 2023

TIARA  
Spoon &  
Chopsticks  
Set of 4  
티아라  
사인사색  
수저 젓가락  
세트



**\$14.99** PINK/PURPLE/  
BLUE/MINT  
PAIR/SET

SAENGONG  
Flat Mop Bar  
생활 공작소  
베이직 밀대  
EA



**\$12.99**

SAENGONG  
Disposable  
Sweeping Cloths  
생활 공작소 물걸레 청소포

**\$4.99** 24 SHEETS  
/PKG

SAENGONG  
Dry Refill Sheets  
생활 공작소 청소포

**\$3.99** 60 SHEETS  
/PKG

AT'G  
Laundry  
Liquid Pods

AT'G  
초고농축  
퍼퓸 세탁세제  
PINK/LAVENDER  
32 EA/PKG



**\$6.99**

SUNTOUGH  
Grill Pan  
한국산  
썬터치  
고기 구이판  
ROUND -  
390 MM X 360 MM//  
SQUARE -  
385 MM X 355MM//EA



**\$1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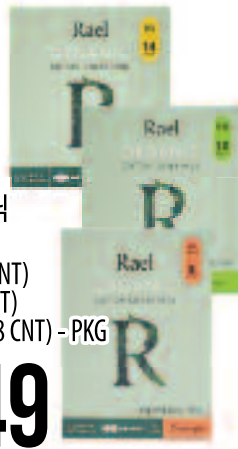
PLU  
Body Scrub  
플루  
바디스크럽  
ROSEMARY HERB/  
BERRY MIX/  
WHITE MUSK  
7.05 OZ



**\$7.99**

RAEL  
Organic  
Cotton Cover  
Pads

라엘 오가닉  
코튼 패드  
MEDIUM(14 CNT)  
/LARGE(12 CNT)  
/OVERNIGHT(8 CNT) - P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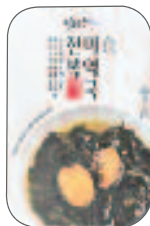
**\$4.49**

Fried  
Squid  
까박  
후라이드  
오징어튀김  
1.76 OZ



**\$3.99**

IGOJANG  
Seaweed Soup  
with Abalone  
이고장  
전복 미역국  
5.6 OZ



**\$3.99**

Seaweed Soup  
with Dried Pollack  
황태 미역국  
4.9 OZ



**\$2.99**

PINK ROCKET  
Rapokki  
핑크로켓  
라볶이  
ORIGINAL  
/CARBONARA  
/MAC & CHEESE  
5.47 OZ



**\$1.99**

JAYEON GONGYU  
Collagen  
Pollack  
Crispy Chips  
자연공유  
바삭한 황태칩  
SPICY/CHEESE/  
GARLIC BUTTER  
0.66 LB



**\$1.99**

Sliced  
Stuffed  
Squid  
동네랑  
오징어 순대  
슬라이스  
14.1 OZ



**\$8.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presents

  
**Piano Extravaganza**  


---

 Three Generations  
 of Pianists  


---

 Saturday  
**September 30**  
 7:30 PM  


---

 Jordan Hall  
 New England Conservatory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김정자



변화경



백혜선



손민수



변은선



신창용

General \$30/ Senior \$20  
Student free admission with registration

Works for Piano Four Hands and  
Two Pianos

Tickets and more info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

Mozart | Debussy | Copland/Bernstein  
Schubert | Ravel



Minsoo Sohn photo credit by Shin-Joong Kim



#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